

## 박은식 문학 효용론의 맥락과 배경

황재문\*

### •차례

1. 서론
2. 문학 효용론의 맥락
3. 문학 효용론의 배경
  - 3.1. 문장론의 성격과 문학 효용론
  - 3.2. '효용'의 강조와 문학 효용론
4. 결론

### ■ 국문초록

본고는 신구 문학관의 교체를 이끈 것으로 평가되는 박은식 문학론의 맥락과 배경을 검토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성립 과정과 의의를 해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서사건국지서』로 대표되는 박은식의 문학 효용론은 국문소설의 중요성을 제기했다는 측면에서 주목되었지만, 그 지향점과 성립 과정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박은식의 문학 효용론이 제기된 맥락과 배경을 검토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교수.

함으로써 지향점과 성립 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 선행 작업으로서 박은식의 작품에 대한 실증적 문제를 일부 검토함으로써 현재 까지 박은식이 전통적 양식에 따른 산문 작품 이외의 소설을 쓴 사례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문학 효용론의 맥락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도 박은식이 梁啓超의 논리와 용어를 활용하면서도 그와는 다른 지향점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문학이론적 탐색은 미진했지만, 그 반면에 제재 및 주제의식과 같은 문학 작품의 내용에 대한 주목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또 이러한 문학 효용론의 형성 배경으로는, 전통적 한학을 익힌 문장가로서의 박은식의 ‘문장’에 대한 관점과 ‘효용성’에 집중하게 된 시대적 상황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문학 효용론, 문장론, 박은식, 『서사건국지서』.

# 1. 서론

윤세복은 朴殷植(1859~1925)의 활동을 언급하면서 “新舊交換時代に 처하여 閱歷의 實驗이 있다.”는 표현을 쓴 바 있다.<sup>1)</sup> 옛 것과 새 것이 교체되는 시대에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는 말이다. 문학에 있어서도 이러한 지적인 성립할 수 있을 듯하다. 한문학의 전통에 바탕을 둔 활동도 하면서도 새 시대의 국문문학으로서의 소설의 중요성을 제기하는 논의를 펼침으로써, “신구 문학관의 교체”를 이끌었기 때문이다.<sup>2)</sup>

그렇다면 박은식의 문학론이 우리 문학사에서 주목되는 이유는 문학론 자체의 내용보다는 문학사적 위상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사건국지서』(1907)에서 제시한 ‘문학 효용론’이 박은식의 문학론을 대표하게 된 것은, 이런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 결과 문학에 대한 박은식의 견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사건국지서』의 ‘문학 효용론’이 나타난 배경을 박은식 문학론 전체의 맥락 속에서 살피고 동시에 『서사건국지서』 이후의 문학에 대한 인식 변화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주목하여, 박은식의 문학론을 재검토해보고자 한다.<sup>3)</sup>

그런데 박은식의 문학론을 논하기에 앞서 한 가지 문제를 먼저 고려할

- 
- 1) 尹世復, 『몽배금태조서』, 『백암박은식전집』 4, 동방미디어, 2002, 42쪽.
  - 2)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4(제4권), 지식산업사, 2005, 223~225쪽에서는 ‘신구 문학관의 대립과 교체’라는 제목 하에 ‘소설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거론하였는데, 그 첫머리에서 박은식의 글인 『서사건국지서』의 문학사적 의의와 한계를 논하였다.
  - 3) 박은식의 문학론을 검토한 선행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있다. 유양선, 『박은식의 사상과 문학』, 『국어국문학』 91호, 국어국문학회, 1984; 강영주, 『愛國啓蒙期の 傳記文學』, 임형택·최원식 편, 『전환기의 동아시아 문학』, 창작과비평사, 1985; 이경선, 『박은식의 역사·전기소설』, 『한국학연구』 8,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85; 황재문, 『서간도 망명기 박은식 저작의 성격과 서술 방식』, 『진단학보』 98호, 진단학회, 2004.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박은식의 생애와 작품 목록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문제이다. 사실 박은식의 생애나 저작 목록에 대해서는 아직 불명확한 부분이 적지 않다. 만민공동회에의 참가 여부나 『황성신문』 주필로서의 활동 시기 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어 있고, 신문·잡지에 발표된 글의 저작 여부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저작 목록의 정리에 대한 논란은 아직 진행 중이다.<sup>4)</sup> 이러한 논란의 존재는 20세기 초의 인물들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공통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박은식은 언론 활동을 했던 인물이기에 특히 저작 목록에 대한 부분은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저작 목록의 문제가 문학론 연구에 문제가 되는 이유는, 새로운 작품의 발굴이 이뤄질 경우 논의의 틀이나 연구의 결과가 수정되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은식이 제기한 문학론, 특히 문학 효용론에서 중시한 ‘소설’을 박은식이 실제로 창작한 사례가 발견된다면 그 영향은 더욱 클 것이다. 박은식이 자신의 문학론을 실천한 사례로서 전이나 몽유록과 같은 전래의 양식을 활용하면서 새로운 면모를 보인 예를 발견할 수는 있지만,<sup>5)</sup> 소설 또는 새로운 양식의 문학작품을 쓴 예를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필명 또는 무기명으로 글을 발표하거나 오랜 기간 망명 생활을 해야 했던 사정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박은식이 쓴 소설’이 발굴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두 차례 정도의 시도가 있었지만, 그 결과가 성공적인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첫 번째는 작품의 사상과 필치에 주목하여 『서북학회월보』에 수록된 12편의 ‘단형서사’의 저자가 박은식이라는 견해를 제시한 유양선의 연구이

4) 신용하, 『朴殷植의 社會思想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82; 윤병석, 『朴殷植의 민족운동과 한국사 저술』, 『韓國史學史學報』 6, 한국사학사학회, 2002; 노관범, 「대한제국기 박은식 著作品目錄의 재검토」, 『한국문화』 30집,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2; 노관범, 「대한제국기 박은식과 장지연의 자강사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7. 본고에서는 박은식의 생애에 대해서는 주로 노관범의 「대한제국기 박은식과 장지연의 자강사상 연구」의 견해를 수용하여 논의를 편다.

5) 유양선, 앞의 글; 강영주, 앞의 글; 황재문, 앞의 글.

다.<sup>6)</sup> 그러나 작중화자 또는 청자를 설정한 이들 작품의 저자가 박은식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유양선은 耳長子, 春夢子, 憂時子, 知言子 등으로 필명이 표기되거나 필자 표기가 없는 이들 작품을 “『서북학회월보』의 주필”이었던 박은식의 작품으로 파악하였지만, 이 작품들이 수록된 시점에는 주필이 金源極으로 교체되었기 때문이다. 『태극학보』의 주필로 활동했던 김원극은 1909년 8월 19일에 박은식의 뒤를 이어 『서북학회월보』의 주필이 되었는데,<sup>7)</sup> 김원극의 필명 가운데 하나가 春夢子이다. 따라서 유양선이 거론했던 ‘단형서사’들은 김원극 또는 제삼자의 작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박은식이 중국에서 백화로 쓴 소설을 전집에 수록한 ‘백암박은식선생전집편찬위원회’의 자료발굴 사례이다.<sup>8)</sup> 수록된 작품은 4권 26회의 회장체 소설(희곡)인 『英雄淚』인데, 소설의 효용을 강조하는 문학론을 서두에 내세운 이 작품은 1911년에 중국 작가가 쓴 것으로 판단된다.<sup>9)</sup> 전집 편찬과정에서 근거로 내세운 일본 측 기록의 정확성이 의심스럽고 『自序』의 소설론이 梁啓超의 소설론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박은식의 작품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이처럼 현재까지 큰 성과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소설을 포함한 새로운 문학 작품 또는 문학론 자료가 발굴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본고에서는 문학작품 또는 문학론을 내포한 자료가 앞으로 발굴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하면서, 우선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박은식의 문학 효용론이 가진 맥락과 배경을 검토할 것이다.

6) 유양선, 앞의 글, 102~107쪽.

7) 『會事記要』, 『서북학회월보』 1권 16호, 1909.10, 63~64쪽.

8) 『醒世小說 英雄淚』, 『백암박은식전집』 4, 동방미디어, 2002. 박은식의 저작으로 판단한 근거와 경위는 『해제』의 28~30쪽에 제시하였다.

9) 황재문, 앞의 글, 161~164쪽.

## 2. 문학 효용론의 맥락

박은식의 문학 효용론을 대표하는 글은 「서사건국지서」이다. 이 글은 박은식이 1907년에 중국인 鄭哲의 『서사건국지』를 번역하면서 붙인 것이다. 鄭哲(貫公)은 일본에서 읽은 설러의 『빌헬름 텔』을 바탕으로 하여 1902년에 이 작품을 쓴 것이니,<sup>10)</sup> 박은식은 중역하면서 그 취지를 밝힌 서문을 쓴 셈이다. 먼저 글의 주요 부분을 아래에 제시한다.

- ① 夫小說者는 感人이 最易하고 入人이 最深하야 風俗階級과 教化程度에 關係가 甚鉅호지라. 故로 泰西哲學家가 有言호되 其國에 入호야 其小說의 何種이 盛行호는 것을 問호면 可히 其國의 人心風俗과 政治思想이 如何호는 것을 觀호리라 호엿스니, 善哉라 言乎여.
- ② 我韓은 由來 小說의 善本이 無호야 國人所著는 九雲夢과 南征記 數種에 不過호고, 自支那而來者는 西廂記와 玉麟夢과 剪燈新話와 水滸誌 等이오, 國文小說은 所謂 蘇大成傳이니 蘇學士傳이니 張風雲傳이니 淑英娘子傳이니 호는 種類가 閭巷之間에 盛行호야 匹夫匹婦의 菽粟茶飯을 供호니, 是는 皆荒誕無稽호고 淫靡不經호야 適足히 人心을 蕩하고 風俗을 壞호야 政教와 世道에 關호야 爲害不淺호지라.
- ③ 學士大夫가 此等 緊要의 事에 慢不致意호고, 學問家에 所宗은 性理討論의 湖洛競爭과 儀禮問答의 蝨絲牛毛而已오, 功令家의 所誦은 蘇子瞻의 赤壁賦와 申光洙의 關山戎馬而已니, 試問하건디 這般工夫가 於國性과 於民智에 究有何益가.
- ④ 余가 間嘗 同志를 對호야 小說 著作을 擬議호나 現方 報館에 執役호므로 暇隙이 苦無호를 畀더러 또 此等著作에 技能이 不及호지라. 抱志莫遂

---

10) 『서사건국지』의 저자명은 鄭哲貫으로 잘못 알려져서 백과사전에조차 잘못 기록된 예가 적지 않다. 이는 박은식의 번역본에 “鄭哲貫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데, “貫公”은 鄭哲의 호일 것으로 파악된다. 다지리 히로유키[田尻浩幸], 『燕谷小派의 ‘瑞西義民傳’과 이인직의 신연극 ‘은세계’ 공연』, 『어문연구』 34권 1호, 2006, 210쪽 참조.

에 徒深慨嘆터니 適以微疾로 委頓牀第 十餘日이라. 精神이 不甚昏朦  
 時에는 敗箱의 殘書를 抽히야써 寓目홀시 맛참 支那學家 政治小說  
 의 瑞士建國誌 一冊을 得히니 披閱數日에 殆乎忘病이라.<sup>11)</sup>

①에서는 소설의 감화력에 대해 지적하였다. ‘感人’이 가장 쉽고 ‘入人’이 가장 깊다는 소설의 특징을 진술하고, 이어서 그 나라의 인심풍속과 정치사상의 정도를 살피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성행하는 소설의 ‘종류’를 보아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소설의 기능 또는 효용에 대한 일반론을 논의의 전제로서 제시한 것이다.

②에서는 한국에서 향유되고 있는 ‘소설’의 상황에 대해 비판하였다. 善本, 즉 인심풍속이나 정치사상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바람직한 소설작품은 없어서, 인심·풍속·정교·세도를 해친다고 했다. 한국인이 쓴 한문 및 국문소설이 모두 그러할 뿐 아니라, 중국에서 유입된 소설들 또한 다르지 않다고 했다.

③에서는 한국의 學士·大夫가 이처럼 중대한 기능을 가진 소설에는 뜻을 두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학문가’(학자)는 호락논쟁이나 예송과 같은 사소한 일에 몰두하고, ‘공령가’(문장가)는 「적벽부」나 「관산용마」와 같은 노래나 읊조릴 뿐이라고 현실을 진단하였다. 학사·대부가 ‘國性’과 ‘民智’와 같은 중대한 일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④에서는 자신이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소설 저작을 논의했지만 결국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고 했다. 신문사 일을 하면서 시간적 여유를 얻을 수 없고 ‘技能’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러다가 읽어보게 된 것이 중국 학자의 ‘정치소설’인 『서사건국지』였다고 했다. 이 부분은 번역 및 간행의 경위를 서술한 것이면서, 동시에 ②

11) 『瑞士建國誌序』, 『백암박은식전집』 5, 185~186쪽.

와 ③의 현실을 극복하면서 ①의 전제를 충족시키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소설론은 박은식의 독창적인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①에서 제시한 소설의 특징에 대한 견해는 牛林杰이 지적한 바와 같이 梁啓超의 소설론을 인용하거나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sup>12)</sup> 또 ②에서 제시한 한국에서 향유되는 소설에 대한 비판은 전래의 소설비판의 논리를 이어받은 것처럼 보이며, 동시에 전래의 중국 소설을 “誨盜誨淫”으로 지목하며 비판한 梁啓超의 논리와도 유사하다.<sup>13)</sup> 요컨대 梁啓超로부터 유래한 소설론과 전래의 소설비판론을 결합시킴으로써 ‘소설 번역’의 필요성을 이끌어낸 것인 셈이다. 그 과정에서 “흥미를 끌어서 널리 읽힌다.”는 비판의 근거를 뒤집어서 소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이유와 배경으로 삼은 점은 새로운 시도처럼 보이지만, 이 또한 梁啓超가 소설의 활용을 주장한 방식과 유사하다.

그런데 유사한 문학론을 제시한 것처럼 보이는 박은식과 梁啓超의 이후의 활동 방향은 달랐다. 박은식이 중국 소설의 번역에 그쳤다면, 梁啓超는 외국 소설의 번역을 넘어 ‘중국소설계혁명’을 내세우는 『신소설』지의 창간으로 자신의 소설론을 구체화한다. 이러한 차이는 왜 나타났을까. 우선 문학론(소설론)의 성립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梁啓超의 『譯印政治小説序』와 『論小説與群治之關係』를 통해 이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梁啓超의 『譯印政治小説序』도 외국의 소설을 번역하여 간행하면서 붙인 서문이다.<sup>14)</sup> 번역하는 소설을 ‘정치소설’로 지칭하고 있다는 점 또한 박은식의 경우와 같다. “誨盜誨淫”이라고 전래의 소설을 비판한 대목도 유사하

12) 牛林杰, 『韓國 開化期文學에 끼친 梁啓超의 影響 研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9, 98~100쪽. 牛林杰은 梁啓超의 『論小説與群治之關係』(1902)에서 사용된 ‘易人’, ‘易感人’, ‘感人之甚’ 등의 어구를 제시하면서 영향 관계를 지적한 바 있다.

13) 梁啓超 『譯印政治小説序』, 『음빙실문집』 권3, 34쪽.

14) 위의 책, 34~34쪽.

다. 물론 차이는 있다. ‘정치소설’이 “泰西人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서 이전에 없었던 양식이라거나 마음에 품은 생각이나 정치의 의론을 밝히는 방식이라고 지적한 점은 다른데, 이는 두 사람의 견문과 경험의 차이를 반영한다. 다만 양계초 또한 전래의 소설에 대한 비판을 내세운 것을 보면, ‘정치소설’이 전래의 소설과 완전히 다른 갈래로 인식한 것은 아닐 것이다.

『譯語政治小說序』와 『서사건국지서』의 근본적인 차이는 소설의 효용에 대한 견해를 이끌어낸 방법에 있다. 박은식이 양계초 등의 견해를 인용하여 근거로 삼은 반면, 양계초는 스스로 소설의 효용성을 입증하고자 했다. 이때 양계초는 현실로부터 도출한 추론, 스승인 康有爲의 발언, 서구 및 일본의 정치소설의 역할에 대한 지식의 셋을 근거로 소설의 효용성을 입증한다. 양계초는 장엄한 것을 꺼리고 해학을 즐기는 것과 같은 사람의 보편적인 情이 있음을 지적하고, 교육을 잘 하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의 情으로부터 남을 이끄는 방법을 찾는다고 했다. 스승인 康有爲가 “겨우 글자를 아는 사람 가운데 경전을 읽는 이는 없지만 또한 소설을 읽지 않는 이가 없다.”고 지적하고 사람의 등급에 따라 교육의 방법을 달리해야 하는바 어리석고 학식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소설이 유력한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인용했다. 외국에서는 “魁儒碩學”이나 “仁人志士”가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수단으로 정치소설을 활용함으로써 政界의 진보를 이뤘다는 사례도 제시했다. 결국 소설을 교육 또는 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할 만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양계초는 “소설은 국민의 혼”이라는 ‘영국 명사’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약간은 과장된 방식으로 이러한 결론을 제시한다.

몇 년 뒤에 발표된 『論小說與群治之關係』에서는, 소설을 수단으로 보는 관점을 넘어서서 ‘소설’의 내적 질서와 힘에 대해 스스로 연구한 결과를 제시했다. 소설에 이상파소설과 사실파소설의 두 종류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소설에는 熏·浸·刺·提의 네 가지 不可思議한 힘이 있음을 불교적 논리를 활용하면서 논증한다. 소설이 ‘感人’하고 ‘入人’하는 현상을

더 널리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그 이유를 밝혀내고자 한 것이다. 현실과 소설의 관계를 단선적으로 파악했다거나 과장했다는 식의 비판은 가능하겠지만, 梁啓超 스스로 소설 자체에 대해 연구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소설론 또는 문학론의 전개에서 진전을 이뤘을 뿐 아니라, 소설 창작을 시도할 수 있는 발판을 여기서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소설의 소재에 대한 고민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感人’하고 ‘入人’할 만한 소설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 박은식의 『서사건국지서』에서 논의의 전제로 내세운 소설의 감화력에 대한 발언은 梁啓超의 『論小說與群治之關係』에서 차용한 것이다. 그렇지만 글의 논리나 결론은 『譯印政治小說序』의 경우와 가깝게 보인다. 소설 자체의 원리, 또는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적고, 어떤 소재를 택함으로써 소설의 영향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높기 때문이다. 박은식이 “此等著作에 技能이 不及”하다고 고백한 것은, 실상 이러한 경향을 대변하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그 결과로 박은식은 소설의 ‘소재’로 관심의 폭을 좁히게 되었을 것이다.

한편 박은식은 시의 효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시의 경우에는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살펴보자. 다음은 『몽배금태조』에서 시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 ① (帝) 曰, 至若詩賦取人으로써 말하면, 隨 楊廣의 倡設한 바라. 彼 支那帝王이 天下의 人才를 消滅한 野心으로 行한 바어늘, 朝鮮이 또한 此를 倣行하여 人才를 消滅케 하니 八百餘年에 至함은 何故인가.
- ② 無耻生이 曰, 詩의 爲物이 人의 心志를 感發하며 風俗을 薰陶함의 가장 效力이 靈捷하고 多大한 者라. 唐宋時代에 詩歌가 最盛하니 臣이 幼時로부터 甚히 嗜好한 바 有합니다.
- ③ (帝) 曰, 此는 人民의 生命을 用送하는 薤露歌로다. 何者오. 人의 身體는 勤勞로써 健強하고, 人의 心地는 勤勞로써 鍛鍊하고, 人의 智識은 勤勞로써 增長하고, 人의 生産은 勤勞로써 豊足하고, 人의 事業은 勤勞로써 發

展하고, 人의 福祿은 勤勞로써 自至하는 故로, 勤勞의 人은 天이 愛히시고 神이 助히느니라. … 今乃 幼稚한 兒童의게 飲酒로 百年을 度하고 圍棋로 長夏를 消하는 詩歌로써 傳授하니 是는 民族을 滅亡케 하는 方法이 아닌가.<sup>15)</sup>

『몽배금태조』는 무치생(박은식)이 꿈에 금나라 태조를 만나서 문답을 나누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용 부분에서 무치생과 금 태조는 시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데, 그 견해는 같지 않다.

우선 무치생의 견해를 살펴보자. 무치생은 시가 ‘心志’의 감발과 ‘風俗’의 훈도에 가장 큰 효력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시를 읊어서 ‘심지’와 ‘풍속’을 바른 곳으로 이끌어왔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시의 효용을 강조하는 전통적 견해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금 태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시의 효용을 부정하는 논의를 펴고 있다. ①에서는 과거제에서 詩賦로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을 비판한 것인데, 과거제를 실시한 목적이 인재를 소멸시키고자 한 데 있다고 지적했다. 급제를 위해 詩賦를 익히다 보면 사회에 쓸 만한 인물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했는 것이니, 이는 시 특히 과거 준비를 위해 익히는 시의 무용성이나 해로움을 지적한 셈이다. ③에서는 조선에서 널리 향유되는 시의 내용에 대해 비판하였다. 술 마시고 바둑 두는 생활을 노래하는 시가를 널리 향유하니, 그래서 결국 민족의 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 범위를 시가 일반으로 확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시에 대한 금 태조의 시선이 부정적임은 짐작할 수 있다.

『몽배금태조』에서 박은식의 결론이나 사상을 대변하고 있는 인물은 금 태조이다. 따라서 ②에서 제시한 시에 대한 견해가 박은식의 결론이나 주장과는 거리가 있을 것이며,<sup>16)</sup> 오히려 시의 효용성에 대한 입장은 부정적

15) 『몽배금태조』, 『백암박은식전집』 4, 85~88쪽.

일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적어도 소설과 같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주장을 펼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위의 인용문만으로는 박은식이 시 일반의 의의를 부정했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친개소문전』에서 연극, 소설, 시가에서 각기 영웅을 소재로 삼았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례가 있듯이,<sup>17)</sup> 소재에 따라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용문의 ③에 주목한다면, ‘근로’ 또는 이와 대등한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소재를 다룰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박은식의 문학 효용론은,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본격적인 문학론으로 보기 어렵다. 그것은 문학(소설)에 특별한 효용이 있다는 주장을 넘어서서 ‘어떻게’ 문학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실상 문학 효용론, 특히 소설 효용론이 번역물의 소개나 자신이 재구성한 역사적 사실의 묘사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맥락의 문제와도 연관된다. 梁啓超와의 대비에서 살펴보았듯이 관심의 폭을 좁힌 차용의 경우에는 ‘문학’ 자체에 대한 진지한 탐구와 ‘문학 활동’을 위한 고려나 계획을 누락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박은식의 문학 효용론이 자각적인 의미 없는 차용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문학성이나 기법을 넘어서서 문학으로 구현해야 할 대상, 즉 소재나 작품의 주제의식에 대해서는 더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것이 박은식의 문학 효용론이 지닌 진정한 의미일 수 있기 때문이다.

---

16) ② 부분의 내용을 근거로 박은식이 시의 효용성을 주장했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17) 『친개소문전』, 『백암박은식전집』 4, 287~288쪽. “通衢大道에 屹然호 銅像은 英雄의 前身이요 金櫃石室의 燦然호 書籍은 英雄의 歷史오 尋常演劇에 英雄이 躍出호며 汗漫小說에 英雄이 縱橫호며 樵童牧豎가 皆英雄을 謳歌호며 婦人女子가 皆英雄을 締繡호니 浩浩호 大千世界에 英雄이 最多部分을 占領호얏도다.”

### 3. 문학 효용론의 배경

#### 3.1. 문장론의 성격과 문학 효용론

박은식은 동시대의 다른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문학’이라는 용어를 오늘날과 다른 의미로 사용했다. ‘학문 일반’을 뜻하는 말로 사용한 것이 일반적이지만,<sup>18)</sup> 때로는 오늘날의 용어와 어느 정도 유사하게 사용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sup>19)</sup> 물론 이 경우에도 그것이 오늘날의 용법과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문학에 대한 박은식의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주로 ‘文’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老論 洛學의 학문적 전통을 섭취”<sup>20)</sup>했다고 평가될 만큼 전통적 한학에서 출발한 인물인 만큼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박은식은 학자로서뿐 아니라 문장가로서도 이름이 있었다. 그의 문장가로서의 비평적 안목과 기준을 살펴볼 만한 자료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살펴볼 것은 1900년의 글로, 『연암집』을 읽고 쓴 발문이다.

옛 사람들은 太史公의 문장을 천년의 絶調라고 칭했지만, 그 문장을 배운 뒷사람 가운데는 구양수, 귀유광 이외에는 능히 잘 배운 이가 드물었다. 이제 연암 선생의 문장을 보니, 疎宕하여 기이한 기세가 있고 옛 것에

18) 『발해태조건국지』, 『백암박은식전집』 4, 403쪽 ; 『몽배금태조』, 『백암박은식전집』 4, 50쪽. ‘學問’이라는 용어도 사용했는데(『몽배금태조』, 『백암박은식전집』 4, 112쪽), 그 차이는 분명하지 않다.

19) “文學專門科 校長은 本朝 世宗大王이시니 國文을 始製하여 國民의 普通學識을 啓發하시고 漢文教師는 百濟 高興氏와 新羅 任強首氏와 高麗 李齊賢氏와 本朝 張維氏오, 百濟 王仁氏는 日本教師로 往하얏더라.”(『몽배금태조』, 『백암박은식전집』 4, 153쪽)

20) 노관범, 앞의 논문, 141쪽.

엷매이거나 기이한 것에 동요하지 않고, 변화와 곡절이 훌쩍 뛰어나서 진실로 태사공과 같다. 어찌 기이하지 않겠는가. 지금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열하일기』만 보고서는 선생의 문장이 패관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지만, 이는 한유가 쓴 속된 문장을 보고서 한유가 俗文을 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을 따름이다. 어찌 옳겠는가.<sup>21)</sup>

서두에서는 사마천의 문장이 천년의 절조라고 칭송할 만한 명문이라는 옛 사람들의 평가를 거론했다. 이어서 마땅히 모범으로 삼아야 할 사마천의 문장을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익혔겠지만, 그것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몇 없었다고 했다. 박은식은 중국의 구양수와 귀유광이 것처럼 드문 예라고 하고서, 연암 박지원이 또한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지원 문장의 본령이 『열하일기』와 같은 패관에 가까운 글에 있지 않다고 했다. 패관은 또한 ‘俗文’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오늘날 박지원에 대한 평가의 상당 부분이 『열하일기』의 존재에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 지적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고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박은식이 문장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과 기준이므로 이 문제는 잠시 접어들 필요가 있다.

박지원과 사마천이 공유하는 부분, 그리고 구양수와 귀유광이 공유하는 부분은 무엇인가가 초점이다. 박은식은 “疎宕하여 기이한 기세가 있고 옛 것에 엷매이거나 기이한 것에 동요하지 않고, 변화와 곡절이 훌쩍 뛰어나”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문장의 기세를 중시하고 유행에 따른 모방이나 불필요한 장식을 배격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만하다. 이는 당송 고문과를 모범으로 한 문장론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사마천, 구양수, 귀유광, 박지원을 모범으로 내세운 박은식의 문장론은,

21) 『讀燕巖集跋』, 『백암박은식전집』 5, 103쪽. “昔人稱太史公文爲千年絕調。後之學之者自歐陽廬陵·歸震川以外鮮有能善學者也。今觀燕巖先生之文。疎宕有奇氣。不囿於舊。不驚於詭。變化曲折。超曠離絕。真史公若也。豈不奇哉。乃今世之人。或徒見熱河日記。而疑先生之文。近於稗官。是猶觀昌黎所作俗下文字。而遂謂昌黎爲俗文耳。焉可哉。”

박은식 자신이 문장을 쓰거나 다른 사람의 문장을 평가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문장에 대해 직접적으로 평가한 사례는 현재 상황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박은식 자신의 문장에서는 그러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전과 몽유록, 역사 서술 등에서 박은식의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는 ‘서사적인 장면화’ 또는 ‘서사적 재구성’의 경우에도<sup>22)</sup>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할 만한 여지가 있다. 즉, 소설에 대한 관심의 영향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사마천의 역사 서술을 문장의 모범으로 삼아 글쓰기를 지속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사마천 또는 당송 고문과의 文論에서의 의미는 한 마디로 요약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만 여기서 박은식이 장식이나 모방을 배격하는 의미를 그 가운데서 발견하고 있다는 점은 지적해 둘 수 있을 듯하다. “옛 것에 얽매이거나 기이한 것에 동요하지 않는다.”는 대목에서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는 그의 문학 효용론에서도 소재와 주제 의식에 보다 주목하는 양상을 보인 것과 관련지어 이해할 만한 부분일 것이다.

두 번째로 살펴볼 자료는 1910년에 간행한 한문 독본이다. 박은식이 최남선을 높이 평가하고 최남선이 세운 신문관을 통해 저술을 발표한 사례가 적지 않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거니와, 대한제국이 국권을 잃을 무렵인 1910년 9월에는 신문관을 통해 『高等漢文讀本』을 간행하였다. 간행 경위를 살펴볼 만한 서발문 등은 붙어 있지 않지만, 여기에 수록한 글을 통해 박은식의 ‘문장(교육)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다. 박은식은 총 35편의 문장을 선발하였는데, 작가별 선발 편수와 작품명은 다음과 같다. 배열 순서는 수록 작품수를 일차적인 기준으로 하고, 편수가 같은 경우에는 『高等漢文讀本』에서의 수록 순서를 따랐다.<sup>23)</sup>

22) 강영주, 앞의 글, 191~194쪽 ; 황재문, 앞의 글, 169~171쪽.

23) 『고등한문독본』은 ‘書序記’와 같은 방식의 문체별 배열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작가의 수록 순서에서 특별한 규칙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표 1> 『고등한문독본』 수록 작품 목록

국적	인명	수록 편수	수록작품명
중국	曾國藩	7	寄紀鴻手諭, 鳴原堂論文序, 原才, 五箴, 勉強, 忠勤, 日課四條
	歸有光	3	容春堂記, 陶庵記, 守耕說
	王陽明	2	與聶雙江書, 立志說
	呂祖謙	2	管仲言宴安論, 衛懿公好鶴論
	梁啓超	1	大同志學會序
	朱熹	1	存齋記
	方苞	1	原人
	王慎中	1	示王生國振
	소계		18편
한국	이이	5	護松說, 玉堂陳戒箴, 祭退溪李先生文, 夫子文章贊, 思菴琴銘
	이황	2	答李仲久書, 與吳仁遠書
	변계량	2	鄭圃隱先生詩集序, 箕子墓碑文
	박지원	1	咸陽郡學士樓記
	김종직	1	日本居士重俊字說
	김장협	1	讀陳同甫孔明論
	서명응	1	首陽辨
	송익필	1	祭栗谷李先生文
	김부식	1	溫達傳
	이승인	1	題千峰詩藹後
	유신환	1	名實解
	소 계		17편
총계			35편

‘文選集’이 아닌 ‘讀本’이라는 점은 고려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 자체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작품의 선발에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박은식의 문장 선발의 안목은 동시대의 선집 편찬자들과는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10년 전 『연암집』을 읽고 불인 박은식 자신의 글에서 보인 시각과도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우선 중국 작가들 가운데는 曾國藩의 글이 7편으로

가장 많다는 점이 눈에 띈다. 歸有光의 글 3편을 수록한 것을 제외한다면, 『讀燕巖集跋』에서 거론했던 司馬遷 歐陽修의 글은 전혀 수록하지 않은 점이 특이하다. 더불어 唐宋八家의 글도 수록하지 않았다. 한국 작가로는 이이의 글을 5편 수록한 반면에 자신이 “사마천을 잘 배웠다”고 묘사했던 박지원의 글은 1편만 수록하는 데 그쳤다. 동시대의 인물인 김택영이 “麗韓九家”로 꼽았던 인물 가운데는 김부식, 김창협, 박지원만 1편씩 선발하고 있을 뿐, 나머지 6명의 문장가의 글은 아예 수록하지 않았다. ‘文選集’과 ‘讀本’의 차이라고 해석하기에는 그 편차가 너무 크다.

책에 서발이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박은식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선발된 작가의 구성을 살펴보면, 박은식의 사상적 경향 또는 사승관계와의 관련성을 찾는 해석은 가능하다. 즉, 중국의 당송 고문과 및 양무운동 관련 인물, 스승인 박문일·박문오나 수학 및 초기 활동의 원조자인 민병석과의 사승관계로 해석할 수 있는 인물 등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사상 및 교유 관계의 맥락에서 문장 선발의 경향을 짐작해 볼 만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해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우선 문장가라기보다는 학자에 가까운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문장가의 글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대표적인 명문을 수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컨대 박은식이 사마천의 문장을 이었다고 칭송한 박지원의 경우를 보면, 『咸陽郡學士樓記』 1편을 선발하였는데, 이 글은 김택영의 『여한십가문초』나 장지연의 『大東文粹』에는 수록되지 않았다.<sup>24)</sup> 『咸陽郡學士樓記』는 문장으로서의 가치를 평가받은 글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최치원의 행적이 상세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렇다면 ‘문장미’보다는 문장에서 담은 내용에 박은식이 주목한 것은 아닌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4) 『大東文粹』(1906)는 휘문의숙의 교과서로 편찬된 것이므로, 책의 성격상 『高等漢文讀本』과 크게 다르지 않다.

1900년과 1910년 사이에는 10년의 차이가 있고, 이 기간 동안 박은식의 사상과 대한제국의 현실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적어도 1910년 무렵에는 박은식이 문장의 형식이나 미적인 부분에 대해서 큰 가치를 두지 않게 되었던 듯한데, 그러한 경향은 10년의 기간 동안 점차 강화되어 갔으리라고 짐작된다. 다만 둘 사이의 공통점을 문장에서 형식미보다는 내용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관점이라고 이해한다면, 그것은 박은식이 「서사건국지서」에서 소설의 내적 질서보다는 소재나 주제의식에 관심을 보인 사실과 동일한 경향성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3.2. '효용'의 강조와 문학 효용론

박은식은 대한제국의 국권이 상실된 이후에는 문학에 대한 긍정적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다.<sup>25)</sup> 오히려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할 만한 언급을 보이기도 한다. 다음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朝鮮民族은 從前 怠逸과 文弱과 虛僞의 病根을 拔去호야 勤勞호고 武強호고 眞實호 新國民을 養成치 아니호면 實로 蘇生の 機가 無홀지니, 豈不痛哉야.<sup>26)</sup>

「몽배금태조」에서 무치생과 금 태조가 과거제 및 詩의 효용을 두고 논

25) 박은식이 1910년 이후 문학의 긍정적 면모를 강조한 사례로 『韓國痛史』(1915)에서 제시한 國魂/國魄의 논의를 들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는 어문, 즉 말과 글의 가치를 지적한 것이며, 國魂으로서의 문학의 가치를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해당 부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대개 國敎, 國學, 國語, 國文, 國史는 魂에 속하고, 錢穀, 卒乘(병사), 城池, 船艦, 器械는 魄에 속한다. 魂의 사물됨(성질)은 魄에 따라 살고 죽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國敎와 國史가 망하지 않았다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은 것이다. 아야. 한국은 魄이 이미 죽었도다. 이른바 魂은 생존했는가, 그렇지 않은가?”(『韓國痛史』, 『백암박은식전집』 1, 440쪽)

26) 「몽배금태조」, 『백암박은식전집』 4, 90쪽.

쟁을 벌인 이후에 금 태조가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다. 怠逸·文弱·虛僞와 勤勞·武強·眞實을 대비시키고, 조선민족은 후자의 덕목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소생할 수 있으리라고 했다. 과거제와 시로 대표되는 과거의 문학을 비판한 부분이므로, 여기서 문학이 부정적인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금 태조의 비판이 ‘문학 일반’이라기보다는 ‘과거 조선에서 향유된 문학’을 향한 것이기는 하지만, ‘文’이 ‘紋’과 통하고 ‘文飾’이나 ‘文弱’과 연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학 일반에 대해서도 적용될 만한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서사건국지서』에서 보인 소설에 대한 관심이나 문장가로서의 박은식의 위상을 고려할 때,<sup>27)</sup> 이러한 문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물론 내용, 즉 소재와 주제 의식을 강조한 점을 고려하면 이해할 만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후에도 일종의 무관심으로 보일 만큼 문학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점은 별도의 해명이 필요할 듯하다.

정확한 답을 찾는 것은 어렵지만, 박은식의 시대적 과제에 대한 인식은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보인다. 박은식은 문학뿐 아니라 문자행위 일반이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되기를 기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그의 ‘문학 효용론’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학에 독자적인 영역이 있어서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문학을 포함한 모든 행위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1910년 이후에는 국가가 소멸되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가장 필요하면서도 효율적인 영역이 무엇인

27) 박은식은 중국 망명 기간 동안에도 중국 측 인사들로부터 한국의 대표적인 문장가로 인정받고 있었다. 上海 대동편집국에서 “東西洋偉人叢書”의 하나로 『안중근』을 간행할 때 박은식의 글을 수록한 것이 그 단적인 사례이다. 또한 박은식 스스로도 『香江雜誌』(1913)를 비롯하여 다양한 언론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다. 박은식의 중국 망명기 언론 활동에 대해서는 배경한, 『중국망명시기 박은식의 언론활동과 중국인식』, 『동방학지』 121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3 참조.

지를 고민했고, 실제로 문자 행위에서의 결론은 역사, 지리, 그리고 兵學이었다.<sup>28)</sup> 문학은 부차적인 문제였던 셈이다.

효용성이라는 문제는 박은식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유학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박은식이 주자학자에서 양명학자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시대에 맞는 효용성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내세운 사실이 그것이다. 다음은 1911년의 『소년』지의 마지막 호에 실은 「왕양명실기」의 한 부분이다.

- ① 嗚呼。天地之進化 | 無窮 故로 聖人之應變이 亦無窮호니, 所以因時制宜호야 以成天下之務者也라. 顧世儒不達於此호고 將一個道理호야 執之爲不可變之格式호니, 殊不知宜於古者 | 有不宜於今호고 不能因時制之호야 逆天地之進化호야 以禍其民國者 | 多矣니, 執一無權之弊 | 顧何如耶야. 吾邦由來에 最有力之學派 | 以宋儒之忠僕으로 行無斷之習호야, 或學界之有新說者는 加以斯門亂賊之律호야 束縛人之思想호고 不放開分毫自由라. 於是 人才縮退호고 人智錮塞호야 結性痼習이 日以益深이라. 世界之風潮 | 若是其漲溢호고 學界之光線이 如彼其發達호디 而尙墨守舊轍호야 牢拒新化라가 究竟結果 | 乃止於斯호니 此其爲害 | 有甚於焚坑之暴라.<sup>29)</sup>
- ② 按 世之學者 | 論朱·王二子之異同이 蓋斷斷未已矣라. 然 至于今日호야 此等異同之辨은 均屬無益이니 勿問이 可也라. 蓋吾儕之所以爲學者 | 何事오. 非爲其修己及人호야 以有補於世者乎야. 當今之時호야 所謂聖賢之學을 全行廢却則已어니와 如欲講明此學호야 以爲修己及人之要領이면 則惟王學之簡易真切이 爲適於時宜라.<sup>30)</sup>

①에서는 과거 조선에서의 주자학의 폐쇄성을 통렬하게 비판하였고, ②에서는 양명학이 時宜에 맞는 儒學이라고 지적했다. 양명학, 특히 박은식이 지지한 양명 우파가 적절한 대안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

28) 박은식은 역사를 정신으로 지리를 신체로 비유한 바 있으며, 안창호 등의 인물에게 보낸 서간문에서는 젊은이들에게 병학의 학습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고 솔회하였다.

29) 「왕양명실기」, 『백암박은식전집』 3, 502쪽.

30) 「왕양명실기」, 『백암박은식전집』 3, 632~633쪽.

가 있지만,<sup>31)</sup> 박은식은 그에 대해 이론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心’의 효용성을 거듭 강조하고, 왕양명을 박은식 당대의 시대적 가치에 맞는 인물로 형상화함으로써 양명학과 ‘心’의 당대적 효용성을 강조했다.

만약 박은식이 유학자로서 자신의 학문적 견해를 펼치고자 했다면, ①에서의 조선 주자학 비판을 이어서 주자학의 학리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어야 한다. 이미 주자학이 독주하는 시대가 아닌 만큼, 그러한 견해를 펼치는데 있어서의 장애물은 많이 줄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은식은 ‘실기’를 저술하여 왕양명의 인간적 매력을 널리 알리고, 그를 바탕으로 양명학 보급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그쳤다. 박은식은 주자학과 양명학의 차이에 대한 지리한 논란을 계속하는 것은 이익이 없으므로 자신은 더 이상 묻지 않는다고 했다. 둘 모두 ‘성현지학’의 범주에 속한다는 데서 공통점을 찾고 현실적인 효용성을 기준으로 양명학을 선택하자고 주장했다.

결국 논리의 해명보다는 효용성의 파악을 우선순위에 둔 것이 박은식의 입장인 셈이다. 이러한 태도가 나타나게 된 이유 가운데 시대의 변화와 정세의 긴박성이 포함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양명학 자체에 대한 진지한 탐구에는 장애가 되었을 수도 있다. 문학 및 문학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문학에 대한 논의가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된 배경에 이와 같은 효용성을 강조하는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결국 1910년 이후에 박은식이 문학 및 문학론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효용성은, 박은식이 한때 문학을 강조하였던 이유였으면서 동시에 문학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게 된 이유였던 셈이다.

---

31) 박은식의 양명 우파 및 양명 좌파에 대한 평가는 「왕양명실기」, 『백암박은식전집』 3, 616쪽 참조.

## 4. 결론

본고에서는 문학에 대한 박은식의 이해와 인식을 대변하는 논의를 문학 효용론으로 요약하고 그 맥락과 배경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박은식이 효용의 원인에 대한 문학기론적 탐색보다는 제재 및 주제의식과 같은 효용이 예상되는 대상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맥락을 해당 자료의 성격과 박은식의 목적의식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또 그러한 문학 효용론 형성의 배경에는 형식미보다는 내용적 요소를 중시한 문장론과 효용성을 중시하게끔 유도한 시대적 환경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논의에 의한다면, 문학에 대한 박은식의 논의가 불철저하다거나 문학론에 큰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듯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 자체가 ‘신구교환시대’의 특징적 면모이며, 동시에 근대적 의미의 ‘문인’이기보다는 전통적 의미의 ‘학자’이자 ‘문장가’였던 박은식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박은식의 문학 효용론은 문학에 대한 인식의 중요한 문제 한 가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질문은 소거하고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한 결정에 집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은식의 문학 이해 방식은, ‘문예’의 가치에 집중한 근대 이후 일부 문학론이 결여하고 있는 부분을 환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록 그것이 급박한 시대적 환경으로 인해 진전된 논의가 이어지지 않은 문학론이라고 해도, 그 문학사적 의의는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한편 문학 효용론이라는 관점에서는 박은식의 문학론은 전래의 ‘載道論’과 근대 이후의 ‘계몽주의 문학론’을 매개하는 위치에 있으리라고 볼

만하다. 박은식의 문학 효용론을 포함하여 셋을 함께 비교하는 연구를 본격적으로 한 이후에 그 구체적인 양상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문제는 앞으로의 과제로 두기로 한다.

##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단국대학교 부설 동양학연구소, 『박은식전서』, 단국대출판부, 1975.  
백암박은식선생전집편찬위원회 편, 『백암박은식전집』, 동방미디어, 2002.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한국개화기학술지 8 : 서북학회월보』, 아세아문화사, 1978.

### 2. 저서 및 논문

- 강영주, 『愛國啓蒙期の 傳記文學』, 임형택·최원식 편, 『전환기의 동아시아 문학』, 창작과비평사, 1985.  
노관범, 『대한제국기 박은식 著作目錄의 재검토』, 『한국문화』 30집,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2002.  
\_\_\_\_\_, 『대한제국기 박은식과 장지연의 자강사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7.  
다지리 히로유키[田尻浩幸], 『燕谷小派의 ‘瑞西義民傳’과 이인직의 신연극 ‘은세계’ 공연』, 『어문연구』 34권 1호, 2006.  
배경환, 『중국망명시기 박은식의 언론활동과 중국인식』, 『동방학지』 121호,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3.  
신용하, 『朴殷植의 社會思想研究』, 서울대출판부, 1982.  
유양선, 『박은식의 사상과 문학』, 『국어국문학』 91호, 국어국문학회, 1984.  
윤병석, 『朴殷植의 민족운동과 한국사 저술』, 『韓國史學史學報』 6, 한국사학사학회, 2002.  
이경선, 『박은식의 역사·전기소설』, 『한국학연구』 8,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85.  
황재문, 『시간도 망명기 박은식 저작의 성격과 서술 방식』, 『진단학보』 98호, 진단학회, 2004.

이 논문은 2010년 10월 31일 투고 완료되어  
2010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고  
2010년 12월 10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 Abstract

# The Context and Background of Park, Eun-Shik's Utilitarian Thought on Literature

Hwang, Jae-Moon

(HK Professo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at SNU)

Park Eun-shik(1859~1925) lived in the period of great change and experienced various old and new cultural style. In the literature, he wrote various prose works in traditional style and accepted new theory from modern China simultaneously. His essay in 1907, “the preface to Seosa- geungukji”, was the result of his experience and effort, and it had been well appreciated as a example of utilitarian literary theory in his period.

In this paper, I researched the context and background of his utilitarian literary theory. As a matter of fact he accepted the logical terms and argument of Liang Chi-chao. But the purpose of essay was different. Park had focused on the utility of literature, so he considered continuously not “how” but “what” to write. So he studied the significant affair and the greate men in history as good subject matter of the literary works. As the background of Park' utilitarian literary theory, two kind of elements are pointed out in this paper. One is Park' critical and traditional viewpoint on the proes, the other is the circumstance of the times.

Those two elements had forced him to concentrate the matter of utility, so his approach to the modification of literary style was not advanced after all.

Key Words : utilitarian literary theory, theory of prose, Park, Eun-Shik, “the preface to Seosa-geungukji”.